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How the mind works)

스티븐 핑커 저, 김한영 옮김, 동녘사이언스, 2007

요약자 : 홍인표

* 페이지의 변경 없이 문단 내부의 글을 생략하였을 경우로 표시하였습니다.

제 7장 가족의 소중함

이 장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심리를 다루고자 한다. ‘물병자리의 시대’에도 그것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선천적 동기들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의 뇌가 자연선택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다. 자연선택은 다음 세대에 태어날 유전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 추진된다. 번식은 후손들의 기하학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지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세대를 풍미한 모든 유기체들은 서로를 희생시키면서 어느 정도로만 번식을 한다. 만일 한 유기체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그 물고기는 더 이상 다른 유기체의 먹이가 되지 못한다. 만일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짝을 맺으면 제3의 유기체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러한 제약 속에 살면서도 성공적으로 번식을 했던, 수백만 세대에 걸친 조상들의 후손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모든 사람은 승리자를 조상으로 둔 덕분에 생존하고 있으면, 필요한 상황에서는 경쟁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쟁하지 않으면 죽는 것은 유기체가 아니라 유전자다. 때때로 유전자의 가장 좋은 전략은 협조하는 유기체, 형제에게 미소를 짓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유기체를 설계하는 것이다.협조적이고 관대한 유기체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자연선택이 우리에게 협조와 관대함을 설치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일 그것들이 집단생활로부터 저절로 생겨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능력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적 유기체, 특히 인간의 내장형 컴퓨터는 당면한 기회와 위협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경쟁과 협조를 선택하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진부한 이야기(갈등에 관한 이야기)라도 때로는 언급될 필요가 있다. 갈등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부한 사실이지만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믿음들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첫번째 믿음은 사회적 관계를 애착, 결속, 유대로 보는 비유 속에 표현되어 있다. 또 다른 믿음은 우리가 사회로부터 배정받은 역할을 아무 생각 없이 수행하고, 사회 개혁은 그 역할을 고쳐 쓰는 문제라고 보는 믿음이다.마음이 자연선택에 의해 설계된 연산 기관이라면, 우리의 사회적 동기들은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시합에 맞게 재단된 전략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친족과 남에 대해, 부모와 자식과 형제자매, 데이트 상대와 배우자, 지인과 친구, 경쟁자와 동맹자와 적에 대해 각기 다른 종류의 생각과 감정을 느껴야 한다. 이제 그것들을 차례로 탐구해 보자.

일가친척

영블러드(1960년대의 대항문화 밴드)는 “형제에게 미소를 지어라”라고 노래했다. 존 레논은 인류의 형제애를 노래했다. 자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친족 관계의 언어를 사용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부들church fathers, 아버지 같은 사람, 아버지patriotism, 모국, 어머니 교회mother church, 수녀원장, 애플파이를 굽는 어머니(미국적인 어머니상), 모성, 혈맹blood brothers, 흑인 형제, 전우들brothers-in-arms, 템플브라더후드, 교우(동포)brethren.....

친족 비유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사람들을 대할 때 피를 나눈 가족들처럼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이다.친족들은 비친족들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그래서 유전자가 유기체로 하여금 친족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게 만들면(예를 들어 급식이나 보호), 자신의 사본에게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이득 때문에 친족을 돕는 유전자들은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개체군 내에서 증가하기 마련이다. 동물계에서 발견되는 이타적 행위의 대다수는 행위자의 친족에게 이익을 준다. 친족 지향성 이타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일꾼들이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개미와 벌 같은 사회적 곤충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아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침입자에게 유독한 독성 물질을 뿌리거나 미늘이 달린 침을 쏘는 등의 가미카제식 전술로 집단을 보호한다. 그런 헌신은 특별한 유전 체계에서 비롯하는데, 그 유전 체계로 인해 그들은 출산을 했다면 생겼을 자식들보다는 자매들과 유전적으로 더 가깝다. 집단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은 자식을 직접 낳는 대신 어머니로 하여금 자매들을 낳게 한다.

유전자는 서로에게 소리를 치거나 행동의 끈을 직접 당기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의 경우에 ‘친족 이타주의’와 ‘유전자의 이익’은 두 심리적 장치인 인지 장치와 감정 장치를 간단히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인간에겐 가계도를 학습하는 욕구와 능력이 구비되어 있다. 계보는 특별한 종류의 지식이다. 첫째, 친척 관계는 디지털(yes or no)이다.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거나 어머니가 아니다. 둘째, 친족은 관계다. 어느 누구도 그냥 아버지이거나 누이가 아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이는 반드시 누군가의 누이다. 셋째, 친족 관계는 위상적 topological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 자식 관계, 세대, 성에 의해 연결고리가 규정되어 있는 망 속의 한 마디다.넷째, 친족 관계는 독립적이다. 나이, 출생지, 면적, 지위, 직업, 별자리 등 우리가 사람들에게 갖다 붙이는 범주들은 모두 친족의 범주와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따라서 우리는 친족 관계를 계산할 때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간접적인 수단으로 친족 관계를 평가한다. 인간은 몇몇 종류의 정보-누구와 함께 자랐는가, 누구를 닮았는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어떤 믿을 만한 출처가 있는가, 다른 친족 관계들로부터 무엇을 논리적으로 추론 할 수 있는가-를 이용한다.

일단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혈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혈연 심리의 또 다른 요소가 발동한다.우리는 그들에 대해 유대감, 동정, 관용, 신뢰를 느낀다.(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인용하면, “가정”이란 “자격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친족에게 느껴지는 호의는, 나의 친절한 행위가 그 친척이 유전자 사본을 퍼뜨리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말해 주는 확률에 비례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친척과 나의 족보상 거리, 그 거리의 친척에 대해 느끼는 확신, 나의 친절함이 그 친척의 번식 가능성(나이와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 있다. 그래서 부모는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사촌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형제자매들만큼 사랑하지는 않는다. 물론 어느 누구도 유전학적이고 보행통계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지를 계산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가족애를 위한 마음의 프로그램들이 진화과정에서 형성되었고, 그 가족애가 조상들의 환경에서 애정어린 행위가 자신을 위한 유전자 사본에 이익을 줄 확률과 '상관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몇몇 인류학자들은 우리의 혈연 의식은 생물학적 혈연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 인터넷 카페 지식인들의 통념에는 놀라운 주장들이 스며들어 있다.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지난 세기들과 비서구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적 탈선이라는 주장, 원시 부족사회에서 결혼은 드물고 사람들은 대단히 문란하고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주장, 전 역사를 통틀어 신부와 신랑은 결혼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다는 주장, 낭만적 사랑은 중세 프랑스 지역의 음유시인들이 만들어 낸 기사화 유부녀의 부정한 사랑이었다는 주장, 과거에 아이들은 성인의 축소판으로 간주되곤 했다는 주장, 옛날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어머니들은 아이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주장, 자식에 대한 염려는 최근에 생겨난 고안물이라는 주장 등이다. 이 믿음들은 모두 잘못되었다. 피는 실지로 물보다 진하고, 인간 존재의 어떤 측면도 마음의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요즘 부모의 사랑이 생물학적 혈연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일로 간주된다. 자칫 입양아와 의붓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을 비방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물론 양부모들은 입양한 아이들은 사랑한다. 만일 자연스런 가정처럼 꾸려 나가기 위해 특별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아이를 입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복합가정(이혼과 재혼에 의해 혈연이 없는 가족이 포함된 가족)은 다르다. 새 부모는 아이가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쇼핑을 한다. 아이는 재혼이라는 거래의 일부로 팔려 온 짐이다. 계부모는 나쁜 평판에 시달린다.

계부모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잔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의 관계들 중에서 부모 자식 관계는 유일하게 일방적이다. 부모는 주고 자식은 받는다. 명백한 진화론적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을 제외하고 오로지 자기 자식들에게만 기꺼이 희생을 하도록 배선되어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설상가상으로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그런 희생을 요구하도록 배선되어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은 친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겐 무척이나 성가신 존재일 수 있다. 계부모가 의붓자식에게 느끼는 무관심이나 반감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느끼는 일반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특별한 것은 생물학적 부모의 무한한 인내와 관대함이다. 이 사실이 수많은 계부모들의 미덕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배우자는 유사친족, 즉 유전적으로 무관하지만 친족이라 불리고 친족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이다. 생물학자 리처드 알렉산더의 지적에 따르면, 만일 배우자가 충실하고, 결혼이 평생동안 지속되고, 각자가 자신의 혈연 친척들이 아니라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위해 행동한다면 부부의 유전적 이해는 동일하다고 한다. 그들의 유전자는 자식이라는 하나의 패키지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쪽에게 좋은 것은 상대방에게도 좋은 것이 된다. 이상적인 조건이라면 부부애는 다른 어떤 사랑보다 강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충성은 혈연에 이끌리기 마련이고, 배우자가 100퍼센트 충실하다고 확신하거나 그(그녀)가 절대로 자신을 버리거나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없다. 단순한 생물의 경우에 부부애의 강도는 족벌주의, 불륜, 도망, 사별의 전체적 확률을 반영하는 최적 매체 수준에 맞춰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결혼의 세부 항목들에 민감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미세 조정한다. 생물학의 관점에서 인척, 불륜, 의붓자식이 부부싸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라면 인척을 선택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 부모는 예비 인척의 자산과 신뢰도를 평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라는 공통의 유전적 이익에 수반될 친선으로부터 최대치의 효용성이 나올지를 따져 봐야 한다. 정략결혼은 혈연심리학의 한 결과다. 또 다른 결과는 누가 누구와 결혼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칙이다. 많은 문화권에서 교차사촌(아버지의 누이의 자식이나 어머니의 형제의 자식)과의 결혼은 장려되고 평행사촌(아버지의 형제의 자식이나 어머니의 자매의 자식)과의 결혼은 금지된다. 이런 풍습은 혈연에 대한 두 가지 현대적 신화를 만들어 냈다. 전통 사회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믿음과 혈연은 유전적 촌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믿음이다. 첫 번째 신화에서 감지할 수 있는 일말의 진실은, 세계 어디서나 부모들은 자식의 결혼 상대자를 결정할 때 자신의 모든 힘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계 어디서나 자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혼, 즉 낭만적 사랑에 대해 강렬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 약혼은 종종 부모와 자식 간의 맹렬한 신경전으로 발전한다. 최종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에도 자식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밤낮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 감정은 거의 항상 부모의 결정에 반영된다.

유사친족을 친족은 생물학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역시 공식적인 교의를 따르고 있다. 교차사촌 간의 결혼을 권장하는 경우처럼 결혼 관습의 큰 문제는, 집단 내의 연령 및 성 분포가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때때로 자식과 맺어 줄 마땅한 배우자감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규칙에는 편법이 있기 마련이다. 누가 누구와 친척지간인지를 재규정하면 무제는 깨끗이 해결된다. 족보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적당한 총각을 골라 그를 교차사촌으로 만들어 딸과 결혼을 시키면 아이들이 제멋대로 원하는 상대와 결혼하는 전례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 체면치레 방법을 곱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위선은 다른 유사친족에게도 적용된다. 혈연 감정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계보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비친족을 친족이라 부름으로써 서로의 유대감을 높이고자 애를 쓴다.

근친상간 법률은 그(남매)보다는 먼 친척들, 예를 들어 사촌들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부와 권력이 미래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가족들에게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로 계층사회의 통치자들에 의해 공포된다.

부모와 자식

유성생식을 하는 대부분의 생물종은 부모가 각각의 자식들에게 자신의 유전자 50퍼센트를 물려준다. 다음 세대에 유전자 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새끼를 쏟아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기체가 이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나 체격이 작고 경험이 적은 새끼들은 어른들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새끼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유기체는 시간, 칼로리, 위험을 현재의 자식들을 돌보고 그 생존 확률을 높이는 일에 배당할지 아니면 새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스스로 자라게 내버려 둘지를 ‘선택’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두 전략은 해당 종이 속한 생태계와 신체 구조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유전학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새와 포유동물은 자식을 돌보는 쪽을 선택했다. 특히 포유동물은 자신의 몸으로부터 각종 영양분을 빨아 들여 젖이라는 이름의 패키지 영양식을 만들어 공급하는 특별한 기관을 채택했다. 새와 포유동물은 칼로리, 시간, 위험, 신체적 소모를 자식에게 투자하고, 자식의 수명 증가로 보상을 받는다.

어린 새끼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큰 새끼에게 드는 비용을 초과할 때 부모는 큰 새끼에게서 작은 새끼에게로 투자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 계산의 기초에는 두 자식이 부모와 동일한 손수라는 사실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관점에서 본 계산이다. 첫 새끼는 다르게 본다. 첫 새끼는 어린 새끼와 50퍼센트의 유전자를 공유하지만, 자기 자신과는 100퍼센트의 유전자를 공유한다. 따라서 첫 새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린 동생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그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두 배’를 초과할 때 까지 부모는 계속해서 그에게 투자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부모와 자식의 유전적 이해가 갈라진다. 각 자식은 부모가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살핌을 원한다. **부모는 각각의 자식에게 (각각의 필요에 따라 상대적으로) 똑같이 투자하기를 원하는 반면, 각 자식은 자신에게 더 많은 투자가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긴장을 **부모-자식 갈등**이라고 한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형제 경쟁이다. 형제들은 부모의 투자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반면, 부모는 모든 자식이 각자의 필요에 비례하는 투자분을 얻을 때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 경쟁은 부모를 매개로 전개된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부모가 한 자식에게 투자를 중단하는 유일한 이유는 미래의 자식들을 위해 아껴 두려 하기 때문이다. 자식과 부모의 갈등은 사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형제들과의 경쟁이다.

부모-자식 갈등은 자궁에서 시작된다. 아기를 밴 여자는 조화와 양육의 여신처럼 보이지만 눈부신 미소 뒤에는 강력한 전투가 벌어진다. 태아는 미래의 자식들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의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어머니의 몸에서 영양분을 채굴한다. 어머니는 자연보호주의자라서 후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예비 상태로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인간의 태반은 어머니의 몸에 침입해 혈류 속으로 들어간 태아의 세포조직이다. 이 태반을 통해 태아는 어머니의 인슐린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 수치를 높이고 혈당을 양껏 흡수한다. 그 결과 당뇨병이 어머니의 건강을 저해하기 때문에, 진화의 기간에 걸쳐 어머니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 왔고, 이에 맞서 태아는 인슐린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여, 결국 두 호르몬은 정상시 농도보다 1000배나 더 높은 수치에 도달했다.

모든 종의 부모는 갓난아기에게 투자를 계속할지 중단할지의 선택에 직면한다. 부모 투자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만일 갓난아기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 기르거나 젖을 먹이는 것은 잃은 돈을 건지려다 점점 더 손해를 보는 셈이 된다. 그 시간과 칼로리는 같은 배의 새끼들에게 돌아가거나, 새 출발을 해서 새로운 새끼를 낳는 데 쓰이거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비축해 놓는 것이 더 유익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발육이 불량하거나 병약한 새끼를 죽게 놔둔다. 인간의 유아 살해에도 이와 비슷한 계산이 깔려 있다. 식량수집 사회에서 여자들은 10대 후반에 첫아이를 낳고 4년의 유아기 동안 필요할 때마다 젖을 먹이지만 많은 아기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을 본다. 운이 좋은 여자는 2~3명의 아이를 성공적으로 길러 낸다.(우리 조부모들의 자식 복은 농업이 모유의 대체물을 제공해 준 덕분에 가능했던, 역사적으로 특이한 현상이다.) 아주 적은 수의 아이라도 성공적으로 길러 내기 위해서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계의 모든 문화에서 여자들은 생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 오면 아기를 죽게 놔둔다. 예를 들어 아기가 기형이거나, 쌍둥이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자신의 남편이 아닐 때, 어머니가 젊거나(그래서 다시 아기를 가질 기회가 있을 때), 사회적 지원이 없거나, 아기를 낳은 후 곧바로 다른 아기를 낳았거나, 먼저 태어난 자식을 키우기가 힘들 때, 혹은 가뭄 같은 시련이 닥쳤을 때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통계 수치에 의하면, 유아를 죽게 놔두는 어머니들은 어리고, 가난하고, 미혼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계의 다른 문화들과 똑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 아닐 것이다.

‘결속(bonding)’이라 불리는 감정 반응은 대개 <한여름 밤의 꿈 A Midsummer Night's Dream>에서 잠을 깬 후에 가장 먼저 본 사람에게 홀딱 빠지게 만드는 요정 꾀의 희생자들 처럼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후 결정적 시간대에 아기와 교류를 하면 평생 동안 애착이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어머니들은 먼저 아기와 어머니 자신의 기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약 일주일 후에 아기를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개인으로 인정한 다음, 그 후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랑을 더해 간다.

아기는 이해 당사자로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쟁취한다. 그 무기는 귀여움이다. 갓난아기들은 일찍부터 어머니에게 반응한다. 아기들은 미소를 짓고, 눈을 맞추고, 어머니의 말에 귀를 쫓긋 세우고, 심지어 어머니의 표정을 흉내 내기도 한다. 아기가 신경계의 기능을 그렇게 광고하면 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져서 아기를 키워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힐 수 있다.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의 지적에 따르면, **아기들의 기하학적 배열-큰 머리, 둥근 두개골, 얼굴 아래쪽에 자리 잡은 큰 눈, 통통한 볼, 짧은 팔다리-은 상냥함과 애정을 이끌어 낸다고 한다.** 그런 배열은 아기 조립과정의 산물이다. 자궁 안에서는 머리 끝 쪽이 빨리 자라고, 반대쪽 끝은 태어난 후에 부진을 만회한다. 뇌와 눈은 나중에 들어찬다. 로렌츠는 어리와 토끼처럼 그런 배열을 가진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귀엽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스티븐 제이 굴드는 <미키마우스에게 바치는 생물학적 경의(A Biological Homage to Mickey Mouse)>라는 논문에서, 만화가들이 그 배열을 이용해 등장인물들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유전자도 마찬가지로 갓난아기의 특징을 과장하고, 특히 좋은 건강을 드러내는 특징을 극대화시켜 어머니에게 더 귀엽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모든 문화에서 어린아이들은 (여

자아이를 포함해) 때때로 어머니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어머니의 배우자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부모-자식 갈등 이론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한다. **엄마에 대한 아빠의 관심은 엄마의 주의를 빼앗아 가고, 설상가상으로 동생을 만들겠다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비극적인 날을 어떻게든 미루기 위해 섹스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을 줄이고 아버지를 어머니로부터 멀리 떼어 놓을 수 있는 전술들을 진화시킬 만하다. 그것은 젖떼기 갈등의 직접적인 연장이다. 부모-자식 갈등 이론은 이른바 오이디푸스적 감정이 왜 남자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어린 남자 아이들이 어머니와 성교하기를 원한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피할 수 있다.

이 대안을 제시했던 델리와 윌슨은, 프로이트의 실수는 두 종류의 부모-자식 갈등을 하나로 묶은 것이라고 믿는다. 작은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아버지와 충돌하지만 이것은 성적 경쟁이 아니다. 그리고 큰 아이들은 성적인 문제로 부모, 그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와 충돌하지만, 그 대상은 어머니가 아니다. 많은 사회에서 아버지는 암묵적으로나 공개적으로나 성적 파트너를 놓고 아들과 경쟁을 벌인다.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일부다처 사회에서는 부자가 딸 그대로 한 여자를 놓고 경쟁을 벌일 수 있다. 그리고 일부다처제나 일부일처제인 대부분의 사회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아내 찾기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자식들이나 아버지 자신의 열망에 손해가 될 수 있다. 아내를 구하려는 아들은 조급한 심정으로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을 떼어 주기만을 기다릴 수 있고, 여전히 정력적인 아버지는 그의 인생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식 살해와 존속살해는 그런 경쟁 때문에 촉발된다.

부모들은 또한 혼담을 정하는데, 이것은 자식을 팔거나 교환하는 것을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부모는 한 자식에게는 좋은 상대자가 돌아가고 다른 자식에게는 못난이가 돌아가는 패키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일부다처 사회에서 아버지는 딸을 자신의 아내감과 교환할 수 있다. 딸이 며느리와 교환되는 경우든 아내와 교환되는 경우든, 딸의 가치는 처녀성에 달려 있다. 남자들은 다른 남자의 자식을 갖고 있을지 모를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효과적인 피임법은 최근에 고안되었고 아직도 세계의 일부에서만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딸의 성에 관심을 갖는데, 얼핏 보면 엘렉트라콤플렉스와 비슷하지만 실은 어느 쪽도 상대를 원하지 않는다. 많은 사회에서 남자들은 딸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끔찍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딸을 감금시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으로 몸을 가리고, 완곡하게 '여성할례'라고 부르는 잔인한 관습에 따라 성에 대한 관심을 뿌리째 뽑아 버린다.(폭력적인 남편이 강간을 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성기를 자른 로레나 바비트의 행위와 똑같은 의미의 할례다.) 이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들은 역설적이게도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행실이 나쁜 딸을 처형하기도 한다. (1977년 사우디의 한 공주는 런던에서 경솔한 일을 저질러 국왕의 동생인 할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돌을 맞아 죽었다.) 부모-딸 갈등은 여성의 성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전개되는 갈등의 특별한 경우로 뒤에서 다시 논의할 주제다.

트리버스는 부모-자식 갈등 이론에서 보면, 부모는 자식을 사회화 시킬 때 진심으로 자식의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부모는 종종 자식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만, 자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훈련시킬 수도 있다. 부모는 각각의 아이가 자기 자신보다 형제에게 더 이타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이타적인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치르는 비용보다 형제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더 클 때

부모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형제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자신의 비용보다 두 배 더 클 때에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붓형제나 사촌처럼 더 먼 친족인 경우, 부모의 이익과 자식의 이익의 차이는 훨씬 더 크다. 아이보다는 부모가 그 의붓형제나 사촌과 혈연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는 집에 남아서 일을 돕는 것이나, 다른 집에 팔려 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부모에게 유익한(그러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형제들에게 유익한) 그 밖의 일들이 사실은 아이 본인에게 좋은 것이라고 아이를 설득할 수도 있다. 갈등이 존재하는 모든 무대에서처럼 부모는 기만이나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므로) 자기기만에 의존할 수 있다. 아이들은 작고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는 부모의 보상, 벌, 훈계, 권유를 받아들이지만, 갈등 이론에 따르면 이런 전술들이 아이의 성격까지 좌우하지는 않는다.

성격은 최소 다섯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교적인가 비사교적인가(외향성-내향성), 끊임없이 고민하는가 침착하고 자족하는가(신경증적 경향-안정성), 예의 바르고 남을 신뢰하는가 무례하고 의심이 많은가(친화성-적대성), 신중인가 경솔한가(성실성-목표불명), 대담한가 순응적인가(개방성-비개방성)가 그것이다. 이런 특성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첫 번째 결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성격 차이의 상당 부분-약 50퍼센트-이 유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출생 직후 헤어진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비슷하고, 함께 자란 생물학적 형제들은 입양 형제들보다 서로 더 비슷하다. 이것은 나머지 50퍼센트는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할까? 아니다! **한 가정에서 자랐는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랐는지는 기껏해야 성격 차이의 5퍼센트를 설명해 준다. 어느 누구도 나머지 45퍼센트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주디스 해리스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아니라 또래집단에 의해 사회화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를 수집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집단, 무리, 패거리, 일당, 도당에 참가하고, 그 안에서 지위를 얻기 위해 책략을 쓴다. 각 집단은 외부 관습을 약간 흡수하고 자체적인 관습을 많이 만들어 내는 하나의 문화다. 아이들의 문화적 유산-링고레비오의 규칙, 니아니아 노래의 선율과 가사, 사람을 죽이면 법률상 죽은 사람의 비석 값을 내야 한다는 믿음-은 아이들 간에 전파되고, 어떤 것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어른 집단에 합류한다. 한 차원에서 쌓은 위신은 다음 단계의 디딤돌이 된다. 어린 청소년 집단의 리더는 데이트 상대 1순위가 된다. 모든 나이에 아이들은 또래들 사이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내야 하고, 부모가 부과하는 어떤 것보다 그 전략에 우선권을 뒤야 한다.

왜 아이들은 부모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트리버스와 해리스처럼 나 역시 그것은 아이들의 유전적 이해가 부모의 유전적 이해와 단지 부분적으로만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칼로리와 보호를 가져간다. 그것을 기꺼이 주는 사람은 부모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찾을 수 있는 최상의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인생에 필요한 전략을 스스로 세운다. 부모는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어른이 아닐 수 있으며, 더욱이 집안에서의 규율은 종종 이미 태어난 형제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형제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그리고 번식의 문제라면 가족은 막다른 골목이다. 아이는 짝을 구하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고, 번식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다양한 경기장에서 지위 확보를 위해 짝을 찾고 소유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경기장에는 각기 다른 규칙이 존재하는데, 아이는 규칙을 충분히 숙달할 필요가 있다.

트리버스의 통찰을 요약하자면,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은 본질적으로 몇몇 당사자가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족한 자원-부모의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은 단지 심리학과 생물학의 문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항상 윤리와 정치의 문제일 것이다.

형제자매들

만일 사람들이 n 명의 아이를 낳는다면 각자가 더 많은 것을 요구 할 것이므로 부모-자식 갈등은 노골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태어난다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르다. 부모는 자신의 에너지를 n 분의 1로 나눠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눠 주기보다는, 영리한 포트폴리오 관리자처럼 우량주와 부실주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투자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이 투자 결정은 각각의 아이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손자 손녀의 수에 대한 의식적인 예측이 아니라, 인간이 진화했던 환경에서 그 수를 극대화시켰던 결과를 얻기 위해 자선선택이 조율해 놓은 감정 반응이다. 식견이 있는 부모들은 편애를 하지 않으려고 극구 노력하지만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한 연구에서, 영국과 미국의 어머니들 중 3분의 2가 특정한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진화론의 예측에 따르면 주된 기준은 나이일 것이다. 유년기는 지뢰밭이어서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를 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이는 곧바로 성년기에 도달하여 손자 손녀를 낳을 소중한 자산이 된다.

부모가 편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 자식은 부모의 투자 결정을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선택되었을 것이다. 자식들은 성년기에 접어들고 부모가 죽은 후에도 편애에 대단히 민감하다. 자식들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제주와, 출생과 함께 받을 들이게 된 포커게임의 동역학을 최대한 이용하는 법을 계산해야 한다. 역사학자 프랭크 설로웨이의 주장에 따르면, 성격에는 포착하기 어려운 비유전적 요소가 있는데 부모 투자를 놓고 형제들과 벌이기 위한 일단의 전략이 그것이며, 한 가족의 아이들이 그렇게 다른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 각각의 아이는 서로 다른 가족 생태계에서 성장하므로, 유년기를 무사히 보내기 위해 각기 다른 계획을 세운다. (둘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이 개념은, 성격은 또래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리스의 견해와 대립한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에게는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첫 번째 아이는 단지 현재까지 생존한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더 소중하고, 유년기가 끝날 때까지는 항상 동생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할 것이다. 첫아이는 1년이나 그 이상동안 ‘닭장’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동생을 강탈자로 본다. 부모가 그들의 이해를 첫아이의 이해와 일치시켜 왔기 때문에 첫아이는 부모와 자기를 동일시할 것이고, 항상 유익했던 현재 상태에 찾아온 변화

를 거부할 것이다. 첫아이는 또한 운명이 부여한 권력을 최대한 휘두르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요컨대 첫아이는 보수주의자이며 골목대장일 것이다.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이 까다로운 아침꾼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둘째 아이는 강도짓과 아침으로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반대의 전략을 연마해야 한다. 그들은 유화와 협조에 의존한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 이익이 적게 걸려 있기 때문에 변화를 잘 수용한다.(이 동역학은 형제들의 성격을 구성하는 선천적 요소들, 그리고 형제들의 성, 체격, 공간적 간격에 따라 달라진다.)

늦게 태어난 아이들은 또 다른 이유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부모는 세상에 나가 성공할 가능성을 많이 보여 주는 아이에게 투자한다. 첫째 아나는 이미 자기가 잘하는 개인적·기술적 재능을 자기 것으로 선언했다. 늦게 태어나 그 영역에 뛰어드는 것은 무의미하다. 상공을 하려면 나이와 경험이 더 많은 형제의 희생이 따라야 하고,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우량주를 골라야 할 때 큰 형제를 이길 가망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생은 뛰어남을 보일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부모는 투자를 분산할 기회를 갖게 된다. 바깥세상의 경쟁에서 작은아이가 큰아이의 기술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생태계에서 생물종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진화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한 가족의 형제들도 자신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각각의 생태 적소는 오직 한 점유자만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설로웨이는 급진적인 과학혁명들(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다윈주의)에 대해 견해를 표방한 3894명의 과학자, 1793~1794년 공포시대의 프랑스 국회의원 893명,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700여 명의 인물, 노예제 폐지 같은 미국 개혁 운동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62명의 전기 자료를 분석했다. 각각의 사건에서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혁명을 더 많이 지지했고, 만이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동적인 성향이 더 강했다. 이 결과는 가족의 규모, 가족의 태도, 사회 계급과 같은 애매한 요소들과는 무관하다. 진화론이 처음 발표되어 선동적인 이론으로 간주될 당시에 진화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첫째로 태어난 사람들보다 100배나 많았다. 민조성이나 사회 계급처럼 급진주의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그밖의 요소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예를 들어 다윈 자신은 상류 계층 출신이지만 나중에 태어났다.) 나중에 태어난 과학자들은 또한 더 많은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는 탓에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매 관계에는 하나의 변수가 더 있다. 한 명은 남자이고 한 명은 여자인데, 이것은 성적 관계의 기본요소이다.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과 섹스를 하고 결혼을 하고(직장 동료, 이웃집 소년이나 소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좋아한다.(같은 계층, 종교, 인종, 외모) 성적 매력의 요소들은 당연히 남매를 자식처럼 달라붙게 해야 할 것이다.

남매들은 부모가 저지하기 때문에 성교를 피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부모들은 서로 소원하게가 아니라 다정하게 지내도록 자식들을 사회화시킨다.("자, 어서 여동생에게 키스하렴.")

근친상간 금기-가까운 친족 간에 섹스나 결혼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관습-는 한 세기 동안 인류학의 골칫거리였지만, 아직도 남매 사이에 가로놓은 장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친상간 금기는 핵가족 내에서의 섹스를 겨냥하지 않는

다. 어떤 금기들은 유사친족과의 섹스를 금지하여 단지 성적 질투심을 강화할 뿐이다.

남매들은 서로에게 성적 파트너로서 매력을 느끼지 않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때문에 남매들은 서로를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거나 혐오감을 갖는 것이다.(반대 성의 형제가 없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프로이트는 그 강렬한 감정 자체가 무의식적 욕망의 증거이고, 특히 남성이 어머니와의 성교를 생각할 때 극도의 불쾌감을 느끼는 것도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형제자매와의 섹스에 대한 강한 반감은 인간뿐만 아니라 장수하고 이동하는 대부분의 척추동물에게서 확실히 발견되기 때문에 적응특성의 좋은 후보자라 할 수 있다. 그 기능은 근친교배의 비용-자손의 유전적 적응도가 감소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유전자 풀에는 해로운 돌연변이들이 꾸준히 유입된다. 어떤 것들은 우성이 되어 주인을 불구로 만들고는 도태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열성이어서 개체군에 누적되기 전까지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가까운 친족들은 유전자를 공유하므로, 서로 짝을 맺으면 해로운 열성 유전자의 두 사본이 결합하여 자손에게 갈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우리 모두는 치명적인 열성 유전자를 한두 개쯤 갖고 있기 때문에 남매가 짝을 맺으면 이론상으로나 위험도를 측정할 연구에서나 손상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것은 모자간, 그리고 부녀간 교배(그리고 정도는 약하지만 더 먼 친족들 간의 교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간(그리고 많은 동물들)은 가족 구성원과의 섹스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을 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인이나 낯선 사람보다는 가족 구성원에게 더 강한 애정을 느낀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의 성적 매력을 분명히 알아보고, 그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나 비친족에 대해서는 애정과 미적 감상이 성적 욕구로 전환되고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도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친상간 회피에는 두 가지 미묘한 특징이 있다. 첫째, 가족 내의 다양한 결합은 각기 다른 유전적 비용과 이득을 본인과 제 3자에게 동시에 안겨 준다. 우리는 성적 반감이 그에 따라 조정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족 구성원과 자식을 낳았을 때 얻는 이득은 그 자식이 일반적인 50퍼센트가 아니라 각 부모의 유전자를 75퍼센트나 갖게 된다는 것이다.(25퍼센트의 차이는 부모가 친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었던 유전자에서 나온다.) 반면에 비용은 기형아를 낳을 위험,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아이를 낳을 기회 상실이다. 그러나 상실되는 기회는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다. 아이들 입장에서든 누가 자신의 어머니인지는 항상 확신할 수 있지만, 누가 아버지인지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확신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 내에서 가능한 각각의 결합은 비용상 제외된다.

부녀 근친상간과 남매 근친상간의 경우 계산 결과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먼 조상들 중에 딸이 형제나 아버지에 의해 임신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녀는 임신 9개월 동안, 그리고 만일 아기를 키운다면 2~4년에 걸친 수유기 동안 비친족과 자식을 낳을 기회를 상실할 것이다. 그녀는 기형일지 모르는 아이 때문에 소중한 번식 기회를 낭비한다. 따라서 근친상간은 전적으로 혐오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남매나 딸을 임신시키는 남자

입장에서는 자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임신하더라도 그는 다른 누군가를 또 임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기형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며, 태어난다면 그에게는 순전히 보너스일 것이다.(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의 몸속에 들어간 그의 추가 유전자가 보너스다.) 따라서 근친상간 혐오가 더 약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그는 선을 넘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것은 번식의 비용이 남성에게 더 낮고 그래서 남성의 성적 욕구가 더 무차별적인 특별한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전적 중복을 직접 감지하지 못한다. 다른 지각의 경우들처럼 뇌는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세계에 대한 전제들과 결합하여 지적인 추측을 수행해야 한다. 4장에서 나는 객관세계가 그 전제를 위반할 때 우리는 착각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바론 그런 일이 친족 지각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19세기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웨스터마크는 유년에 한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성장하면 뇌는 그 사람을 ‘형제’ 범주에 넣는다고 추측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른이 아이를 양육하면 그 어른은 그 아이를 ‘아들’이나 ‘딸’로 지각하고, 아이는 그 어른을 ‘어머니’나 ‘아버지’로 지각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분류되면 성적 요구는 사라진다.

민머느리제가 남매간의 심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장한 후에 부부는 서로를 무덤덤하게 느꼈으며,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고, 불성실하고, 자식이 적고, 짧았다.

그러나 웨스터마크이론의 최종 승리는 존 투비의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남자아이들이 어머니와 자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생각이라고 느낀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옷 입는 것을 보면서 성적인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썼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유모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프로이트 여사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지각 체계에 경고하는 초기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로써 웨스터마크이론은 프로이트를 프로이트적으로 물리친 셈이다.

남편과 아내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남자들은 다수의 섹스 파트너가 아니라 다수의 아내를 원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문화들 중 80퍼센트 이상에서 권력자들은 일부다처를 허용해왔다.

일부일처제를 규정하는 법률은 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경제학자 스티븐 랜즈버그는 다음의 예에서 돈 대신 노동력을 이용하여 그 시장 원리를 설명한다.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연애 산업에서 벌어지는 남자 생산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남자들이 공모하여 손을 잡고 ‘고객들’, 즉 그들이 결혼을 제안할 여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편다. 남자들의 공모는 각각의 남자가 남자 전체의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낭만적인 노력을 제한하자는

합의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남성들의 향상된 조건은 속임수를 불러들인다. 다시 말해 각각의 남자는 합의된 숫자 이상의 여자를 꾀려고 노력한다. 이 카르텔은 법적 제재를 시행함으로써 존속하지만, 그래도 위반 사례가 무수히 발생한다.

일부일처 법률은 역사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유력한 남성들 간의 합의다. 그 목적은 연애 산업의 고객들(여성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산자들(남자들) 간의 경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불평등은 일부다처의 변형을 허락한다. 부유한 남성들은 아내와 첩을 동시에 부양하거나, 20년 간격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대고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한다. 저널리스트 로버트 라이트는 공공연한 일부다처처럼 쉬운 이혼과 재혼도 폭력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 부유한 남성들이 출산 연령대의 여성들을 독점하여 하층 계급의 남성들에게 돌아갈 아내감이 부족해지면, 최하층의 젊은 남성들은 무모한 수단에 의존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성 차이, 즉 남성들이 다수의 파트너를 더 많이 원한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인간 조상의 여성들은 은밀한 욕구의 진화를 허용했던 성관계로부터 무엇을 얻었을까? 첫 번째 보상은 자원이다. 남성들이 섹스를 위한 섹스를 원한다면 여성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얻어낼 수 있다. 식량수집 사회에서 여성들은 연인들에게 선물-주로 고기-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당신은 우리의 먼 어머니들이 스테이크 식사에 몸을 팔았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양질의 단백질이 부족한 식량수집 사회에서 고기는 대단히 중요한 물품이다.

설문지에서 여자 대학생들은 비록 남편을 고를 때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애인을 고를 때 사치스런 생활방식과 선물 공세를 중요한 기준으로 꼽는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많은 종의 새들처럼 여성들도 최고의 남성에게서 유전자를 얻고 남편에게서 투자를 얻을 수 있다. 여성들은 남편보다 애인을 고를 때 외모와 힘을 더 중시한다고 보고한다. 뒤에서 보겠지만 **외모는 유전자의 품질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여성들은 불륜 관계를 맺을 때 일반적으로 남편보다 지위가 높은 남자를 고르는데, 지위를 뒷받침해 주는 자질들은 거의 틀림없이 유전이 되는 것들이다. 사이먼은 성관계와 관련된 성차이에 대해, **여자는 남자가 어떤 면에서 우수하거나 남편을 보완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고,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을 한다고 요약한다**.

그러나 더 체계적인 조사에 따르면 남성들, 적어도 미국 대학생들은 단기적 파트너에 대한 몇 가지 선호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친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는 다산과 유전적 품질의 신호다. 난교와 성 경험 역시 자산으로 평가된다. 메이 웨스트는 “남성들은 과거가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역사가 반복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성들이 장기적 파트너에 대해 답을 할 때 그 자산은 채무로 돌변한다. 남성들은 여성을 양분하여 손쉬운 사냥감이 될 수 있는 해픈 여자와 잠재적 아내가 될 수 있는 수줍은 여자로 나누는 악명 높은 마돈나-창녀 이분법을 보여준다. 이 사고방식은 종종

여성 혐오라는 증상으로 불리지만, 실은 자식에게 투자하는 모든 종의 수컷에게서 볼 수 있는 최적의 유전적 전략이다. 요약하자면 **자신은 어떤 암컷과도 짝짓기를 하지만, 자신의 배우자는 다른 어떤 수컷과도 짝짓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자들은 남편의 조건으로 무엇을 찾을까? 여자는 부와 지위에 감동하거나, 남자가 그런 것을 갖기에 너무 젊을 경우에는 야심이나 부지런함처럼 그런 것을 획득할 수 있는 잠재 요인들을 보고 감동해야 한다.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남자가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들을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남자들은 진심이든 아니든 여자 옆에 붙어 있겠다고 말하는 것에 이해가 걸려 있다. 그러므로 여자는 안정과 진실성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남편에게는 보디가드로서의 소질도 있어야 한다.

남자들은 아내의 조건으로 무엇을 찾을까? 아내로서 정절(남편의 부성을 이끌어 낸다)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여자는 가능한 한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야 한다.(항상 그렇듯이 이것도 우리의 취향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남자가 말 그대로 수많은 아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녀는 생식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녀가 건강하고 사춘기를 넘겼지만 폐경기에 도달하진 않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생식 능력은 평생에 걸친 결혼보다는 하룻밤의 관계에 더 적절하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장기간에 걸쳐 기대할 수 있는 자식의 수다. 여자는 몇 년마다 한 명씩 자식을 낳고 기를 수 있고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기간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부가 어리면 어릴수록 가족의 미래 규모는 더욱 커진다. 10대를 벗어나지 못한 너무 어린 신부라면 20대 초반의 여자보다 생식 능력이 떨어지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위의 기준이 적용된다. 남자는 쓰레기라는 이론과는 정반대로 결혼 적령기의 여성을 보는 눈은 하룻밤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과 부권을 위해 진화한 것 같다. 아버지의 역할이 교미에서 끝나는 침팬지들 사이에서는 주름이 많고 축 처진 암컷들 중 일부가 가장 섹시한 암컷으로 통한다.

사람들의 행동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구인광고란을 보면, **여자를 찾는 남자들은 외모를 따지고, 남자를 찾는 여자들은 경제적 안정, 키, 진실성을 따진다.**

이에 대한 명백한 반론은, 여자들이 부유하고 유력한 남자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부와 권력이 남자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성차별 사회에서 여자들이 부와 권력을 얻으려면 결혼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안은 실험을 통해 오류임이 입증되었다. **연봉이 높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명망 있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많은 존경을 받는 여자들이 오히려 보통 여자들보다 남편감의 부와 지위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심지어 여권운동 단체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가난한 남자들은 다른 남자들과 똑같이 아내감의 부나 돈버는 능력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모든’ 치장이 섹시하게 보이려는 시도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주장 뒤에는 그런 전제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지만,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사람들은 많은 이유로 신체를 장식한다. 예를 들어 부유하게 보이기 위해, 연줄이 좋게 보이기 위해, 강인하게 보이기 위해, 유행에 뒤처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통스런 성인식으로 정예 집단의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 신체를 장식한다. 성적 매력은 다르다. 다른 문화 출신의 이방인들도 누가 아름답고 누가 아름답지 않을지에 대해 현지인들과 의견이 같고, 어느 문화권의 사람이든 잘생긴 파트너를 원한다. 심지어 3개월 된 아기들도 예쁜 얼굴

에 눈길을 준다.

섹시함은 무엇일까? 양성은 모두 감염이 없고 정상적으로 성장한 배우자를 원한다. 건강한 배우자는 원기 왕성하고, 전염병이 없고, 생식 능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현지의 기생충에 대한 유전적 저항력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대칭, 기형의 부재, 청결함, 깨끗한 피부, 맑은 눈, 온전한 치아는 모든 문화에서 매력적인 요소로 통한다.

좋은 유전자를 나타내는 더 미묘한 증거는 평균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평균적인 매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각 부위의 크기와 형태가 평균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 인구에서 한 특성의 평균값은 자연선택이 선호한 최적 설계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다.

남자같이 생긴 여자들은 왜 매력이 없을까? 만일 여자의 얼굴이 남성화되었다면 그녀는 혈액 속에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많은 것이고(여러 질병들의 한 증상이다.),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많으면 불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설명은 예쁜이 탐지기가 사실은 세계 속의 모든 물체들로부터 여자의 얼굴을 가려내기 위해 설계되었고, 여자의 얼굴과 가장 비슷한 사물인 남자의 얼굴과 혼동을 일으킬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율되었다는 것이다.

남자의 외모는 여자들만큼 빨리 기울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 기준 때문이 아니라 남자들의 생식 능력이 나이를 먹는 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성들이 여성을 객관화하고 억압하기 위해 꾸며낸 공모가 아니다. 정말로 성을 차별하는 사회에서는 여자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차도르로 감싼다. 역사상 모든 시대에 아름다움에 대한 비판은 권력을 가진 남자, 종교 지도자, 때때로 나이 많은 여자, 의사들처럼 최근의 미용 열풍 때문에 여자들의 건강이 위험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이것은 간단한 경제학과 정치학으로 설명된다. (정통 페미니즘의 분석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게 모욕을 줄 수 있다. 여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끔 세뇌당한 열뜨기가 되기 때문이다.) 개방적인 사회에서 여자들은 예쁘게 보이기를 원한다. 남편, 지위, 유력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은 아름다움을 싫어한다. 아내와 딸들이 아무 남자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여자들이 그들의 성성에서 나오는 이익을 남자들에게서(딸의 경우에는 어머니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경제적 원리 때문에 남자들도 멋있게 보이기를 원하지만, 시장의 힘은 더 약하거나 다르다. 여자들의 외모가 남자들에게 중요한 것만큼 남자들의 외모는 여자들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성 모두 자신의 짝이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강한 질투심을 느낄 수 있지만, 남녀의 감정은 두 측면에서 다르다. 여자의 질투는 더욱 정교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여자들은 상황을 평가하고 남자의 행동이 자신의 궁극적인 이익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남자의 질투는 더 노골적이고 더 쉽게 촉발한다.(그러나 일단 촉발하면 남자보다 여자의 질투가 더 강하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일부 여자들은 기꺼이 1명의 남편을 공유하지만, 남자들이 1명의 아내를 공유하는 사회는 없다.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는 여성은 항상 남편의 유전적 이익에 위협을 준다. 남편을 속여서 경쟁자의 유전자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하는 남자는 반드시 아내의 유전적 이익에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 그의 사생아는 다른 여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남자가 아내와 아내의 자식들에게 투자해야 할 자원을,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다른 여자와 그녀의 자식들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협이 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것에 질투심을 느껴야 한다. 남자는 아내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여자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시간과 자원, 관심, 애정을 쏟는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남자들이 애정에 동요하는 것은 애정이 섹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여자들이 섹스에 동요하는 것은 섹스가 애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는 사람들의 신체에 전극봉을 붙인 다음 두 종류의 배신을 상상해보라고 요구했다. 남자들은 성적 배신을 상상할 때 더 많이 땀을 흘리고 찡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린 반면에, 여자들은 감정적 배신을 상상할 때 더 많이 그런 증상을 보였다.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배우자 학대와 배우자 살해의 가장 큰 원인은 성적 질투심인데, 거의 항상 남자가 주인공이다. 남자들은 실질적인 배신이나 상상 속의 배신을 벌하기 위해, 또는 부정한 짓을 범하거나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아내나 여자친구를 때리고 죽인다. 여자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또는 장기간 학대를 당한 후에 남편을 때리고 죽인다.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미국 남자들이 여자들만큼이나 자주 배우자에게 구타와 살해를 당한다는 통계 수치를 중요하게 간주해 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심지어 그런 현상이 존재하는 몇몇 사회에서도 그 원인은 거의 항상 남편의 질투와 협박이다.

남자들이 항상 아내를 빗대 사용해 온 은유는 재산이다. 윌슨과 델리는 <아내를 동산으로 착각한 남자 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Chattel>라는 논문에서, 남자들은 아내를 통제하고 경쟁자를 막아 내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권리, 특히 아내의 번식 능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팔거나 교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고, 절도나 손상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사회 전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공동의 보복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어떤 문화에서든 남자들은 아내와의 관계에 소유권 개념을 적용시켜 왔으며, 최근까지도 그 비유를 법조문으로 공식화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그런 살인(남편이 아내와 정부를 죽이는 것)을 처벌하지 않거나 살인범을 관대하게 취급한다. 아내의 간통을 목격한 남편의 질투와 격노를 ‘합리적인 남성’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행동 방식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이다.

경쟁자

생물들은 다른 생물을 해치거나 돕는 능력이 저마다 다르다. 어떤 것들은 더 강하거나 더 사납거나 더 유독하고, 어떤 것들은 더 좋은 유전자나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 그 강력한 생물들은 자신의 강력함을 모두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들과 마주치는 생물들 역시 누가 강력한지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모든 생물이 다른 모든 생물의 DNA, 근육의 양, 생화

학적 구성, 사나움 등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잘난 생물들은 자신의 가치를 저마다 특정한 신호로 광고한다. 애석하게도, 잘나지 못한 생물들은 그 신호를 위조하고 이득을 수확하여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잘난 생물들은 위조하기 어려운 광고물을 만들어 내고, 잘나지 못한 생물들은 더 정교한 위조물을 만들어 내고, 제 3자들은 분별 능력을 강화하는 경쟁이 벌어진다. 지폐의 경우처럼 그 표시들은 비길 데 없이 번드르르하고 본질적으로 무가치하지만,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취급되고 또 그렇게 취급되기 때문에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런 광고물들 뒤에 숨겨진 귀중한 내용물은 우위(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와 신분(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으로 나뉠 수 있다.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두 능력은 종종 결합한다.

모든 다툼에서 비참한 결말에 이를 때까지 싸우는 것은 서투른 전략이다. 상대방도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진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싸움은 패자에게 타격이 크다. 싸움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애초에 상금을 포기했을 때보다 더 나빠지기 때문이다. 싸움은 또한 승자에게도 타격이 클 수 있다. 승자도 싸움의 과정에서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당사자가 사전에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은지를 사정하고 약자가 깨끗하게 물러난다면,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누가 더 큰지를 보기 위해 서로 크기를 제거나, 누구의 무기가 더 센지를 보기 위해 무기를 휘두르거나, 누가 더 강한지를 확인할 때까지 씨름을 한다. 승자는 한 쪽이지만 둘 다 살아서 돌아간다. 패자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면 다른 곳에서 승리의 길을 찾거나 상황이 더 좋아질 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겐 엄격한 서열이 없지만,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 사이에 일종의 서열관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서열이 높은 사람은 의견의 우선권이 있고, 공동의 결정에서 발언권이 크고, 대개 공동의 자원을 더 많이 분배받고, 아내와 애인을 더 많이 거느리고, 다른 남자들의 아내와 더 많이 성관계를 맺는다. 남자들은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동물학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들과 인간에게 고유한 방법들을 이용해 지위를 획득한다. 싸움을 잘하는 남자들은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외모가 더 매력적인 남자들도 높은 서열을 얻는다. 자칭 이성적 동물이라는 종 사이에서도 큰 키는 의외로 강력하다. 대부분의 식량수집 사회에서 '지도자'라는 단어는 '큰 사람'을 의미하고, 실제로 지도자들은 대개 큰 사람들이다. 미국에서 키가 큰 사람들은 고용이 더 잘 되고, 승진이 더 잘 되고, 더 많이 벌고(1인당 연봉 600달러), 대통령으로 더 많이 선출된다. 1904년부터 1996년 사이의 대통령 선거에서 키가 큰 후보가 스물네 번 중 스무 번이나 당선되었다. 신문의 개인 광고란에서 여자들은 키 큰 남자를 원한다. 수컷들이 경쟁을 하는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남성이 여성보다 크고, 낮은 목소리나 턱수염처럼 실제보다 더 커보이게 만드는 방식들을 진화시켰다.

그러나 인간은 언어와 함께, 우위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새로운 방법을 진화시켰다. 바로 **평판**이다. 사회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당혹스럽게 생각해 온 사실은, 미국 도시에서 발생하는 살인의 동기들을 분류했을 때 가장 큰 범주는 강도, 불량한 마약의 거래, 또는 그 밖의 명백한 동기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모욕, 욕설, 부딪힘 같은 비교적 사소한 원인에서 시작된 언쟁”**이다.

남자들은 같은 남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 '함부로 해도 되는 부류', '함부로 하면 큰코다치

는 부류,’ 말이 곧 행동을 의미하는 사람들과 허풍이 전부인 사람들, 여자친구와 농담을 해도 별 탈 없이 넘어가는 녀석과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녀석으로 인식한다. 대부분의 사회적 환경에서 남자의 평판은 부분적으로, 언제나 확실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해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며, 한 사람의 이익은 경쟁자들을 미리 억제하지 않으면 언제나 침해당할 수 있다. 효과적인 억제책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득을 보려 한다면 반드시 가혹하게 응징할 것이고 그래서 장기판의 줄 따위를 희생하더라도 도전자에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확신을 경쟁자에게 심어 주는 것이다.

왜 우리는 치과 의사들이나 교수들이 주차장에서 결투하는 것을 보지 못할까? 첫째, 그들은 폭력의 합법적인 사용권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를테면 도시의 암흑가나 머나먼 국경 지대처럼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확실한 폭력의 위협이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둘째, 치과 의사나 교수들의 재산인 집이나 은행 계좌 같은 것들은 훔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협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수적일 때 ‘명예의 문화’가 출현한다. 그런 문화는 고정된 토지에 농사를 짓는 농경민보다는 가축을 쉽게 도난당할 수 있는 유목민 사이에서 더 많이 발달한다. 유목민 외에도 부가 현금이나 마약처럼 유동적 형태로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발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치과 의사들과 교수들이 남성적이고 가난하고 젊은 계층이 아니라는 데 있을 것이다.

또한 당구장의 살인자들과 그 희생자들은 무지하고, 가난하고, 미혼이고, 종종 직업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인간들처럼 일부다처로 사는 포유동물 사이에서 번식 성공률은 수컷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가장 치열한 경쟁은 성공 가능성이 0명에서 1명 사이를 오가는 수컷들이 몰려 있는 밀바닥에서 벌어진다. 남자들은 부와 지위로 여자를 유혹하기 때문에, 부와 지위가 없어서 여자를 얻을 방도가 없는 남자는 유전적 낭떠러지로 내몰리게 된다. 굶주림이 극에 달하면 위험한 영토로 뛰어 들어가는 새들이나, 1점 차로 지고 있고 1분 후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골키퍼를 빼고 공격 선수를 집어넣는 아이스하키 감독처럼, 미래가 없는 미혼 남자는 어떤 위협이라도 감수할 것이다, 밥 딜런이 노래했듯이, ‘가진 게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

학회가 열린 자리에서 잭나이프를 휘두른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톱 쏘는 질문, 통렬한 되짜르기, 도덕적 모욕, 위압적인 독설, 분노의 항변, 원고 검토 및 연구비 심사들이 난무한다. 원칙상 강제력은 이론 자체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옹호자들은 그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 협박(“명백히...”), 위협(“...라고 한다면 비과학적일 것이다”), 권위(“포퍼가 입증한 바에 따르면...”), 모욕(“이 연구는 ...을 위한 엄밀함이 부족하다”), 비하(“오늘날 진지하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등의 언어적 우위 전술을 동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지위는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다. 그런 자산에는 아름다움, 독보적인 재능이나 전문성, 유력자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부가 포함된다.

배블런은 위신의 심리에는 세 가지 ‘취미의 금전적 표준’이 작용한다고 제안했다. 뚜렷한 여가, 뚜렷한 소비, 뚜렷한 낭비가 그것이다. 사람들이 지위 상징물들을 과시하거나 탐내는

것은 그것들이 반드시 유용하거나 매력적이라서가 아니라(자갈, 데이지 꽃, 비둘기는 확실히 아름답다. 그것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종종 그것들이 너무 희귀하거나 사치스럽거나 무의미해서 부유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생물학자 아모츠 자하비는 자연에서 광고물들이 진화한 이유는 그것이 장애물이기 때문이라고 제안했다. 건강한 동물들만이 그런 것을 가질 여유가 있고, 암컷은 건강한 수컷을 골라 짝짓기를 한다. 이론 생물학자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들 중 한 명인 앨런 그라펜이 후에 그 이론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쿠엔틴 벨은 유행을 분석한 권위 있는 저서에서 단지 하나의 설명만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간은 다음과 같은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당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라. 만일 정상에 있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보이려고 노력하라.”

벨은 배블런의 목록에 네 번째 표준을 추가했다. 뚜렷한 위반이 그것이다. 적극적인 거부는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자기 자신의 지위나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광고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나는 대단히 재능이 있고, 부유하고, 인기가 있고, 인맥이 좋아서 당신을 성나게 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한다.